

MC : FM90.7Mhz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4부 인천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데로 오늘은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병수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갈산1,2동 청천2동을 지역구로 한 부평 제3선거구이고 통합진보당 소속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원기범 아나운서 만갑습니다.

MC : 차가 좀 많이 막히죠?

의원 : 예, 예, 죄송합니다. 가다가 좀 늦었습니다.

MC : 차 잘 세우고 통화하시는 거죠?

의원 : 네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 세웠습니다.

MC : 소속이 지금 통합진보당이시기 때문에 안 여쭙볼 수 없는데 당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탈당하실 계획이 있는 것 입니까?

의원 : 예, 먼저 저희 당을 지지해주신고 사랑해주신 우리 국민과 인천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을 탈당할 예정입니다.

MC : 그러시군요

의원 : 네

MC : 상당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의원 : 예,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이런 모양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MC :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이 한분 더 계시죠?

의원 : 인천에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시의원 2명과 기초의원 다섯 분이 계십니다.

MC :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거취를 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의원 : 구의원 1분을 빼놓고는 시의원 2명과 기초의원 4명은 내일모레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함께 탈당할 예정입니다.

MC : 네 그렇군요. 자 소속이 통합진보당 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최근 발의한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를 통과했는데 ..

의원 : 아니 우리 시의회는 17일에 통과 됩니다.

MC : 아 상임위를 통과한거죠. 그 지원조례부터 소개해주세요.

의원 : 작은 도서관이라 하면 10평 이상에서 200평 미만에 도서관이고 장서가 천권이상에서 6천권 미만인 정도를 작은 도서관이라 합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그러한 작은 도서관이 총 169군데 있습니다.

MC :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원 : 예 우리 부평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남동구, 연수구, 남구 순서로 많습니다.

MC : 네 그렇군요.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도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의원 : 예 그동안 작은 도서관은 시민들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중에서 약 40군데는 우리 구가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 같은 데가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만 나머지 130여 군데는 우리 시민이 직접 지워서 운영을 해왔고 장소임대료부터 도서구입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순수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찾고 가서 책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지원이 없어서 이것을 작은 액수나마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MC : 그렇군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런 작은 도서관이 169군데나 있었나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민간에서 후원 받아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겠군요.

의원 : 예, 그런데 정부에서도 마침 올 초에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에서도 좀 돕겠다고 나섰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도 좀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C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가요? 통과가 된다면

의원 : 우리 인천시에서 ‘작은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작은 도서관 진흥에 도움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인천에는 미추홀 도서관 등 큰 도서관들이 많이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서관에 있는 장서와 운영기법과 노하우를 작은 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구요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사서라고 하는데 정식 도서관에서는 정식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만 작은 도서관에는 정식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사서들이 배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적 교육도 시켜주고 무엇보다도 실태조사를 매년 할 생각입니다. 169군데 중에서 잘되는 데도 있지만 실체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하셨지만 잘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된 곳도 한 이삼십 군데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하고 좀 방치되어 있는 곳은 정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MC : 의원님이 이걸 발의하신걸 보니까 평소에도 작은 도서관을 좀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가능할까요?

의원 : 예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은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고 제가 대표 발의를 했지만 그리고 여러 명의 의원님들에게 이미 찬성을 받아서 본회의 통과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MC : 네 그러면 앞으로 작은 도서관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의원 : 작은 도서관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함께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가면 책과 정보와 교육과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사실은 작은 도서관 이니까 민간의 활동이 좀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너무 또 공공적인 예산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스스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C : 예 알겠습니다. 자 작은 도서관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구요, 지금 지역구 부평이신데 부평 제3선거구인데 그곳에 콜트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요.

의원 : 콜트 악기는 우리 세계에서 악기, 일렉트로닉 악기라고 해서 전자기타 세계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노동자들을 정리하고 시키고 인도네시아로 회사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해고된 노동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2000일이 넘는 거의 6년

동안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2월 달에 대법원에서 ‘콜트악기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해서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 준거죠. 그랬는데 5월말에 콜트악기는 또 다시 보통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고 복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협의해서 정 안될 것 같으면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회사측은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도 않고 5월말에 또다시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9월 17일 날 최종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년 동안 어렵게 정리하고 투쟁을 해온 노동자들의 지원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노동자 긴급 권리 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지금 발의했습니다. 제가.

MC : 아 발의를 한 상황이군요.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돼요.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판결까지 났는데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다 말이지요.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위장 폐업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인천에서만도 하청기업이 두 곳에서 현재 똑 같은 악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본사는 서울에 멀쩡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노조가 활성화되었다는 핑계로 콜트악기 노동자를 전면 정리하고 해버린 거죠. 대법원판결이 존중받지 않고 또 다시 해고했다는 것은 도대체 한국의 경제 질서와 한국의 법적 질서를 지킬 의지가 있는 회사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MC : 자 어쨌건 이 문제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셨다 그랬으니까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 우리 시민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MC : 그렇죠. 네,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 : 네 감사합니다.

MC : 인천의정중계탑이었습니다. 부평구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 강병수 시의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